

쓰지가하나조메 기법으로 염색한 정자문양 도후쿠

여기에 전시된 ‘도후쿠’라 불리는 장식용 상의는 16 세기부터 17 세기까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영주가 가신들의 봉사에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하사했던 의복입니다. 노란색 비단 천에 무명 안감을 입힌 이 도후쿠에는 테두리가 있는 톱니 모양의 세 가로줄이 시보리조메 기법(천의 일부를 묶거나 감는 등의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염료가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하여 무늬를 만드는 기법)으로 염색되어 있습니다. 붉은 선 안에는 흰 바탕 위에 네 개의 꽃잎이 마름모꼴로 배치된 문양과 도라지꽃 문양이 모두 황록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에는 보라색, 흰색, 노란색으로 된 커다란 정자 무늬가 입혀져 있습니다. 이 도후쿠는 당시 장인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염색 기술과 비단이나 염료를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후쿠는 1603 년부터 1867 년까지 일본 전역을 통치했던 도쿠가와 막부의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가 야스하라 텐베에라는 이름의 광산 경영자에게 하사한 것입니다. 1603 년 이와미 은광의 야스하라 갱도에서 13.5 톤의 은이 생산되자 그는 이 은을 막부에 헌상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헌상품을 바친 야스하라는 쇼군을 알현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는데, 그때 이 도후쿠를 선물받았던 것입니다. 이 도후쿠는 이와미 은광을 비롯한 각지의 광산이 생산하는 귀금속의 양에 의해 재정이 좌지우지되었던 막부에게 은광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전시된 도후쿠는 복제품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진품은 교토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